

<하나님! 나의 하나님> 수학공부보다 중요한 ...



"아.. 배 고파. 엄마, 뭐 먹을 것 좀 없어요?"
 오늘도 밤 10시가 넘어서야 학교에서 돌아온 지연이는 책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어 젖히며 수선을 피웠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먹으면 뭐든지 살로 간댄다. 좀 참지 그러니?"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지연이는 결국 커다란 양푼에 밥을 한 가득 담아 김치와 고추장을 넣고 비비기 시작했다. 참기름에 김 부스러기까지 없어 완성된 비빔밥은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 갈 정도로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너나 많이 먹으렴..."

딸아이의 저녁 만찬이 계속된 지 벌써 두 달째이다. 전에는 매일 두 개씩 가져가는 도시락도 남겨와서 걱정이었는데 어느 날 부터인가 싹싹 비워 오는가 싶더니 급기야 매일 저녁, 한 끼의 식사를 더 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이어트를 한다며 오후 여섯시 이후에는 사과 한 조각 안 먹으려 했던 아이였기에 그런 변화가 더욱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 그만큼 공부가 고된 것일까. 한창 싱그러워야 할 나이에 밤 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딱딱한 수학공식과 지겨운 영어단어를 외우고 있을 딸아가 애처로워 가슴 한 구석에 뜨거운 것이 밀려들었다.

"엄마, 왜 그래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내 얼굴을 살피고 있었다.
 "아, 아니야. 잠시 네 생각을 했어."
 나는 얼른 일어나며 딸아이의 가방에서 빈 도시락을 꺼내들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도시락의 뚜껑을 여는 순간, 작은 쪽지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닌가.

"어머니, 고맙습니다."
 쪽지 겉면에 쓰여져 있는 꼭꼭 눌러 쓴 글씨. 분명 딸애의 것은 아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쪽지를 펼쳐 보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 친구인 희정입니다. 그 동안 제 도시락까지 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편지로 대신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지연이가 하루에 네 끼를 먹으면서도 오히려 뿔뿔해져 가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사랑스런 내 딸은 학교에서 수학공식과 영어단어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더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 4권 4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 1월 27일
☎520-9464/021-292-1639. ☐71 Khyber Pass Rd.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예수와 노인



날마다 정오면 교회에 들어갔다 2~3분만에 나오곤 하는 초라한 한 노인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던 어느 목사의 얘기입니다. 도대체 저 노인네가 뭘 하는 것일까? 그는 교회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그 노인을 만나 물어 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요? 기도하려고 왔지요" 하고 관리인의 물음에 그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만큼 오랫동안 교회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난 오래 기도할 줄 몰라요. 날마다 열 두시만 되면 이리로 와서 '예수님 나예요 나, 짐이에요' 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가지요. 그저 짧은 기도죠. 그래도 들어주실 것 같아요." 초라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짐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는 그 병동에 놀라운 감화를 끼쳤습니다. 투덜대기만 하던 환자들이 즐거워하게 되고 가끔 폭소가 울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하고 어느 날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다들 그러는데 이 병실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진 것이 할아버지 덕분이라든군요. 항상 즐거우시다면서요?"
 "맞았어. 간호사 선생, 나는 그렇고 말고. 그런데 그것은 내 방문객 덕분이야. 날마다 그 사람이 날 기쁘게 하거든."
 "날마다 찾아오는 방문객이라뇨?" 하며 간호사는 당황해 했습니다. 짐은 외로운데다 친척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방문객은 언제 오나요?"
 "날마다 오지, 암 그렇고 말고. 날마다 열 두시면 내 침대 저쪽에 그분이 와서는 서 계신단 말이오. 내가 그분을 쳐다보면 빵긱이 웃으면서 '짐, 날세 나, 예수네' 하지 않겠어"

어머니가 딸에게
 화장실에
 시계와 달력과 책을 두어라
 시간 아끼는 법을 배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소짓는 얼굴은 결코 밍지않다
 아무리 멋지게 생겼어도
 찡그리면 흉하다. 미소를 연습하고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라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3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2(시 2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474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박일영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5-23(신87)	인 도 자
어 린 이 시 간 Sunday School		
성 가 대 찬 양 Couple's Choir	'3개의 복음송가'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누가와의 여행" -예수님의 안내자 요한의 부모-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509'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위 탁 의 말 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1,2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Tea Time	주일 안내
27일	박일영	인치혁	인치혁.권용일	박일영.임혜자
3일	송정섭	정덕수	이광희.이재영	윤형권.박정자
10일	신경화	정희자	이종길.이종운	이종길.송정남
17일	윤한나	최기향	정덕수.최윤희	이광희.정덕수
24일	윤형권	최윤희	최재학 김영길	이기중.정희자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답살뜰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려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 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12:00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새벽기도: 6:00	아동, 학생, 청년부: 주일12시
------------	---------------	--------------	--------------------

교 회 소 식

- *벌써 1월의 끝자락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중에 하나님께서 기억해주시는 시간은 사랑하며 보낸 시간뿐입니다.
- 1. 2002년 교회생활 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성경:엡5: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월 실천사항: 1월중 가족끼리 야외(beach, park)에서 1회 식사
- 2. 수요일예배: 탐방기간을 마치고 금주(30일)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탐방에서 얻은 좋은 자료, 좋은 점들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일예배: 저녁 7:30. 본당
- 3. 오늘: 3개교회(갈보리. 임마누엘. 주님의교회) "족구대회". "여성 배구"대회
*시간: 오후4시-8시. *장소: Northshore Event Centre(off porana . Glenfield)
*예배 후 간편한 차림으로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남선교회원은 3:30분까지 오셔서 진행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 <A팀>김영길 집사 <B팀>윤형권 집사
<senior>박일영 집사 <여성배구>윤한나 집사
*축구공. 배구공을 갖고계신 가정은 경기를 위해 잠시 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 당회: 내일(28일) 저녁 8시
공동의회: *30일(수요일) 수요일예배 후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항존직 선출. 회계보고
- 5. 남여선교회 구성
*제1남:<회장>정덕수 집사 <총무>양경배 집사 <서기>유광진 집사
*제1여:<회장>김순자 권사 <총무>임혜자 집사 <서기>최기향 집사
*제2남:<회장>인치혁 집사 <총무>윤형권 집사 <서기>권용일 집사
*제2여:<회장>윤한나 집사 <총무>이기중 집사 <서기>김진희 성도
- 6. 성탄절행사(Christmas with the family) 테잎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치 공중파TV 음악회를 보는듯한 프로급 수준의 편집입니다. 구역별 시사회후 보관
용으로 구입하셔도 실망 안하실 겁니다. *구입문의:김영길 집사
*오늘 체육대회 후 구역별 시사회를 가지시면 즐거운 교제시간을 갖기바랍니다.
- 7. 오늘 Tea time은 본당뒷편에서 갖겠습니다.

<1월 교회력>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기 념 일
27/1	1월 이삭줍기		
3일		구역예배(8일)	
10일	사순절 시작(13일)	설날 식사친교(제2 여선교회)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12일)	
17일		여선교회(22일) '약속의 아비'성경공부(19)	K&L(1) 결혼기념일(21)
24일	'이삭줍기'봉헌	신임집사 세미나(28일)	P&L(2) 이민기념일(28)

*()안은 구역 *무료시내 통화, 기념일에 축하전화인사하기엔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